

# 주민워크샵 효율성 증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이미지맵 활용연구

A study on the image maps for promoting efficiency of workshop with residents

-광주광역시 남구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지구 주민대상-

정은정\* 이연숙\*\* 김주석\*\*\*

Jung, Eun jung, Lee, Yeun sook, Kim, Ju suck

## Abstract

For the past few decades,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s have been mainly carried out after demolition of the original dwelling place. So far, interests and opinions of the existing residents have largely been ignored during the projects. However,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redevelopment has recently been regarded as essential part as progress in democracy and diversified public interests have offered more importance to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ies. While the importance of resident participation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in principle, there still has been more to do in its application in reality. We should develop the experience of collecting community opinion to make them reflected in public policy, if we are to achieve the resident and citizen-centered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image map tool that can be applied to "Maul-Mandulgi" projects as a visualized method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opinions and work toward agreements. The tool is supposed to assist the public discussion by visualizing the policies and reducing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so that residents can properly respond to them. In addition, this study will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tool in the application to local community workshops.

**Keywords** : Resident Participation, Image map, Workshop, Design game, Maul-mandulgi

**키워드** : 주민참여, 이미지맵, 워크샵, 디자인 게임, 마을만들기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수십년간 주거지 정비에 있어 특히,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지구의 정비는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점에서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물리적 기준에 의한 정비의 수행은 결국 기존 지역 주민의 요구/향유 가능수준과 괴리되는 주거환경 정비를 이끌었고, 결과적으로 극히 낮은 재정착률과 저소득층 주거문제의 지속적 사회문제화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주민의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정비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그리하여 최근 시도되고 있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러한 맥락에서 MP와 코디네이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계획제도상, 행정상의 문제와 더불어 주민, 행정, 전문가간의 계획 참여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계획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장래 이미지를 주민과 더불어 구상해야 하는 책무가 관련 전문가에게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으로 이들과 협의하며 계획을 진행시킬 경험이 부족하므로 여전히 형식적 공청회, 설명회, 양케이트 조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현실이다<sup>1)</sup>. 그 대표적인 예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미래상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구상이미지가 있으나 어떻게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협의·조율해야 할지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주민합의에 어려움이 따르며,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의사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의견의 체계화가 되지 못하여 협상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간의 오해를 불러 일으켜 의견 개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의 의견을 도모 및 교류하고 반영하는 기술의 축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간의 오해의 소지를 경감시키고,

\* 정희원(주저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 정희원(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 정희원, 연세대학교 도시재생사업단 연구교수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제2핵심과제 「사회통합적 주거공동체 재생기술개발」(과제번호 : 2008-8-103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1)김현숙(2006), 도시설계 워크샵의 프로세스와 시각화기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2권 2호.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쉽게 구체화하여 의견교환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며 스스로, 상호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각화한 마을만들기 이미지맵 도구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주민 워크샵에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 그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기존 연구를 통하여 참여도구 개발지표를 고찰, 시각적 도구, 상호 피드백 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성질을 갖는 주민참여도구로서 이미지 맵을 개발하였다. 이미지 맵으로 개발한 이유는 지난 20년간 구미에서 실험을 거쳐 참여디자인의 기법과 도구로 가장 유효하게 사용된 것을 중심으로 파악<sup>2)</sup>하여, 그 중 맵핑이 커뮤니티의 사람들의 인식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 간에 놓여 있는 장벽을 허물고, 참가자들끼리 협동심을 길러주기 때문이다<sup>3)</sup>. 또한 여기에 미래 건축물의 유효한 배치를 하고, 그들 지역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이미지맵의 주민들의 의견도출·이해강화·합의도출 유도 등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광주 양림동에서 주민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 II. 주민워크샵 효율성 증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이미지맵

### 1. 마을만들기<sup>4)</sup> 이미지맵 작성과정

워크샵에서 활용된 마을 만들기 이미지맵은 주거지 재생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존 커뮤니티 공간의 이해기반 확장을 위한 커뮤니티 맵 콘텐츠로서 주요 공간을 추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1단계: 마을 소식지를 통한 예비조사, 2단계: 지역전문가와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의 특징적 장소를 추출하여 설문조사 실시 3단계: 지역의 정서적 애착감이 있는 장소 및 경험적 특성을

2)박우장(2001)에 의하면 그 외 기법으로는 도보여행, 인터뷰 및 현장조사, 그룹상호교류, 피쉬볼 계획, 모델, 게임, 우선순위, 토론 및 공개경쟁, 시뮬레이션 등이 있다.

3)박우장(2001), 공동주택 단위주호의 참가디자인 도구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9호, pp130

4)우리나라의 경우, 정석(1999)교수는 마을만들기에 대해, 단순한 일본이 사용하는 마치즈끼리의 직역이나 도입이 아닌, 그 대상 범위와 용어적 정의 등에서 접근하여, 마을환경의 물리적 개선뿐 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등의 소프트웨어적 의미를 포함하며, 특히, 생활환경의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해결함으로써 마을 환경개선과 주민공동체의 복원을 동시에 꾀하는 주민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일정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커뮤니티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조직을 활성화하며, 개개인의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총체적 활동을 지칭한다고 규정하였다. 조미향(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 경부터, 주거환경 정비에 있어 경제논리 우선에서 생활자 논리 우선으로의 변화, 그리고 제 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에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가 강조되는 등 참살이(well-being/LOHAS)를 중시한 주민참여형 도시 및 마을만들기가 대두되고 있다고 하였다

추출하기 위한 면담조사, 4단계: 지역의 보존가치가 있는 장소에 관한 지필조사를 통해 밝혀진 지역의 대표적 상징 장소, 애착감 있는 장소, 보존가치 있는 장소<sup>5)</sup> 등의 조사를 기반으로 이미지 맵<sup>6)</sup>을 만들었다. 또한 주민들에게 포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수채화 성격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하기 쉽도록 주민친화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건물형태를 붙였을 때 하나의 전경처럼 보이도록 지도상에 높낮이를 표현하는 원근법적으로 제작하였으나, 과장된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실제 면적에서 비례하여 왜곡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1 참조>



그림 1. 마을만들기 이미지맵 (베이스맵)

더불어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유형을 파악하여 유형별로 아이콘을 개발하고 쉽게 붙일 수 있는 스티커 형식으로 만들어 재미를 추가하였다. <표 3 참조>

표 3. 건축물 아이콘

아이콘 유형	건축물
	-초고층아파트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15층 정도) -저층아파트 (5층 정도)
	-다세대복합/상가건물 -연립주택/타운하우스 -2~3층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A -단독주택B -한옥

### 2. 주민워크샵을 통한 마을만들기 이미지맵 효율성 검토

본 연구의 조사는 최근 국토해양부 정책과제로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12개 시범사업지역 중 하나인 광주광역시 양림2동 지역주민 대표자들 37명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2008년 12월 12일에

5)김규리(2008)커뮤니티 맵 작성을 위한 지역특성 추출과정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0~41

6)마을만들기 이미지 맵은 거점구역을 포함한 양림동 전체로 하였다. 거점확산 지역은 단순히 사업상의 지역이며,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주민들의 생활권, 커뮤니티 개념으로 양림동 전체가 하나의 커뮤니티로 인식하는 특성 때문이다.

2시간동안 양림동 주민 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워크숍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표 4 참조>

표 4. 주민워크숍 진행과정

프로그램	1부 주민교육/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20:10 스텝 및 프로그램 소개</li> <li>• 20:10~20:20 KBS스페셜 '부동산거품, 한국경제를 삼키나'편집분 상영</li> <li>• 20:20~20:55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에 관한 이해</li> </ul>	
	2부 주민논의/ 활동/ 의견확인/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00~21:40 지역특성논의 (도로/교통, 공원/녹지, 건축물 등)</li> <li>• 21:40~22:00 지역이미지 작성</li> <li>• 22:00~22:20 그룹별 지역특성발표</li> <li>• 22:20~22:25 남구청장 워크숍 감상 및 구장설명</li> <li>• 22:25~22:45 그룹별 지역이미지 발표</li> </ul>	
준비물	모조지, 주민의견취합용 모조지(테마구분 표 사전작성), 포스트 잇, 매직, 매직테이프, 지역백지도, 도시계획도, 특정 주제관련 그림	

워크숍 1부에서는 주민의견수렴에 앞서 주민들에게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의 차이를 인식시키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워크숍 개최시 당일의 프로그램 진행 순서를 설명하면서 워크숍을 통해 당일의 달성목표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에게 확실히 전달하고자 했다. 목표를 공유하고 있어야 토론하기 쉬워지며 디자인게임의 목적에서도 명확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참가자가 '왜 이런 작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어 회의진행이 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림 2 참조>



그림 2. 1부 워크숍 진행 장면

2부에서는 마을만들기 이미지맵을 작성하기 앞서 마을의 잠재력과 문제점을 발견·재인식하기 위해 2개의 토의그룹으로 나누어 주민상호간 의견 교류 및 확인시간을 가졌다. <그림 3 참조>

7)도시재생 사업단 핵심2과제에서 교육실시  
8)2부 워크숍의 주민상호간 의견 교류에 앞서, 말하기 쉬운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 참가자 전원이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였다. 자주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앉은 순서로 발언하게 하였으며, 의견을 말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자택주변 등 구체적인 장소를 이미지화하여 발언을 유도하여 가능한 전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경우는 책상 위 등의 지도에 장소를 확인하면서 발언하게 하였다.

논의항목은 지역의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건축물, 생활환경으로 나누어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현장에서 의견을 포스트잇에 붙이고 이를 표로 작성하였다. <표 5 참조> 그리고 상호간에 작성된 내용을 정리하고, 각 그룹 대표자들의 발표를 통해 내용확인과정(9)을 거쳤다.



그림 3. 2부 워크숍 진행 장면

표 5. 지역특성에 대한 주민의견 정리

	장점	단점
공원/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사직공원이 인접해 자연경관 좋음.</li> <li>• 광주천이 있어 운동하고 산책하기가 좋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공원이 지역 곳곳(집 근처, 학강초교 근처)에 필요</li> <li>• 사직공원 내 불필요한 도로를 없애고 분수대와 녹지공간을 더 넓혀야 함.</li> </ul>
도로/교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좁고 미로 같은 도로사향</li> <li>• 주차시설의 부족</li> <li>• 인도가 없음</li> <li>• 대중교통이 적고 택시도 없어 시내로 나가기 불편함.</li> </ul>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가태, 수피아이고 홀 등의 오래된 지역 건축물에 대한 자긍심.</li> <li>• 보존할 문화재:선교사/교광 표네집, 개비석, 최승효가옥, 기독교 기념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대부분이 노후</li> </ul>
생활환경/문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분들이 많아 아이들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li> <li>• 이웃관계가 좋고, 양반촌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타툼이 적음.</li> <li>• 광주의 시발점이 양림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움.</li> <li>• 종교 활동의 대한 자긍심이 높고 이 또한 교육환경에 도움이 됨.</li> <li>• 범죄가 적고 안전율이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가치 설치 필요.</li> <li>• 집근처 약취 유발시설(담뱃통창고)등의 입지 지양.</li> <li>• 동네슈퍼 밖에 없어 가격이 비싸서 대형마트가 필요.</li> <li>• 근린시설(생활체육시설, 문화/여가시설, 생활용품점)이 부족하고 있어도 열악.</li> <li>• 노인을 위한 시설이 너무 부족, 노인정 등의 노인 복지시설이 필요.</li> <li>• 방과 후 교육센터가 없으며, 특히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원조차도 없음.</li> </ul>
지역경쟁력제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계를 이용한 문화관광산업.</li> <li>• 학강초등학교 도자기 교실이나 노인교실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듦.</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좁고 미로 같은 도로가 경쟁력을 약화시킴.</li> </ul>

9)논의항목별로 나온 장단점 및 기타 의견들을 하나씩 읽어 전원에게 확인하였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 후 다시 4개의 작성그룹으로 나누어 앞에서 설명하였던 마을만들기 이미지 맵을 활용하였다.



그림 4. 주민들이 만드는 마을만들기 이미지 맵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한 곳에 모여 각 그룹별 의견 발표 및 확인 시간을 가졌다. 즉, 주민들이 발표하고 전체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으므로써 주민스스로가 서로간의 상충된 의견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도출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sup>10)</sup>.



그림 5. 주민발표

### 3. 주민들이 원하는 양림동

이미지 맵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이미지 맵의 구역을 양림동의 도로를 기준으로 15개 구역으로 나누어 존별 건물유형을 살펴보았다.<그림 6 참조>



그림 6. 이미지 구역나누기

10) 기존 워크샵에서 볼 수 없었던 갈등구조 없이 밝은 모습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은 본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이런 모습이 처음 보았다.” 라는 코멘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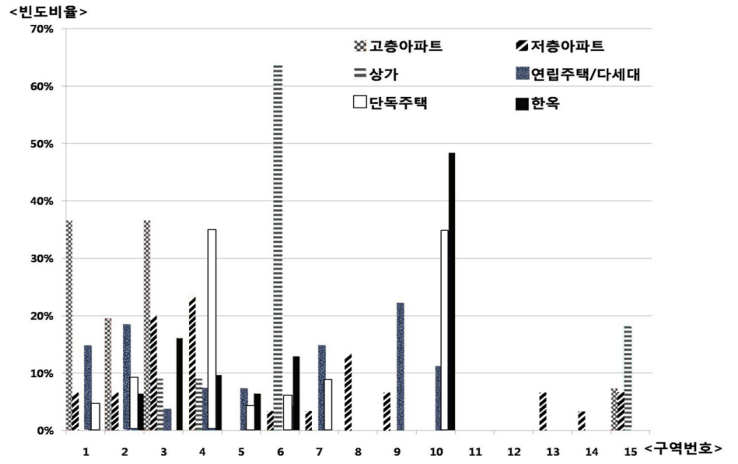


그림 7. 구역별 건물유형 그래프

학강초등학교에 면한 1구역과 광주천 옆 3구역의 경우 고층부-고층아파트의 유형이 두드러졌으며, 2구역의 경우 고층아파트와 연립주택/다세대가 함께 두드러졌다. 4, 5구역의 경우 저층부-연립주택/다세대, 단독주택, 3, 4, 6구역의 경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중심지로서 지역의 근린시설들이 모여 있는 양림오거리<sup>11)</sup>를 중심으로 상가의 유형이 두드러졌다. 3, 4구역의 경우 저층아파트 또한 고층아파트와 단독주택과 더불어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이장우 가옥<sup>12)</sup>, 최승효 가옥<sup>13)</sup> 등 건축, 문화, 역사적 자원이 있는 10구역의 경우 그 구역의 문화재와 잘 어울릴 수 있는 한옥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양림동 문화적인 자원에 가치를 두며, 지속적인 유지·보존하려는 주민들의 자치적인 노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9, 13, 14, 15 구역의 경우 중층부-저층아파트와 저층부-연립주택/다세대가 함께 두드러졌으며, 15구역 경우는 양림교회<sup>14)</sup>와 기독교간호전문대<sup>15)</sup>가 있기 때문에 상

11) 세탁소와 슈퍼가 있는 양림오거리는 지역주민들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이자, 김규리(2008)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마음과 밀착된 공간으로서 주민들이 모여서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라고 언급하였다.

12) 1989년 3월 20일 광주광역시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된 이장우 가옥은 대문간, 곳간채, 행랑채, 사랑채, 안채로 배치된 상류 주택양식의 기와집이다. 전반적으로 뼈대가 굵고 건실하며,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전통가옥이다.

13) 1989년 3월 20일 광주광역시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된 최승효 가옥은 양림산 동남쪽에 있으며 1920년대에 지어진 전통가옥이다. 정면 8칸, 측면 4칸의 일자형 팔작지붕 집으로 동향이다. 독립운동가 최상현의 집이었으며, 다락에 독립 운동가들을 피신시켰다고 한다.

14) 양림교회는 양림동을 대표하는 종교적인 공간이다. 또한 수많은 지역 내의 환경이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주민들에 대한 케어도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삶과 감성이 녹아있는 애착공간이기도 하다.

15) 기독교간호대학은 여성과 노인의 건강관리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산·학·관을 연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노인간호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으며, 양림동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는 여성건강관리센터와 고령자를 위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가가 보다 활성화가 되길 원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이미지 맵을 활용한 구역별 건축물 유형을 통해 본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이전 워크샵에서의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건설방식과 현지개발방식의 갈등구조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었고, 개별적인 의견 차이에 의해 동일해진 않더라도 주거지 정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주민 스스로가 증명하였다. 그리고 구역 특성과 지역의 장단점에 맞추어 지역정비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서로 공유하였다. 또한 주민발표 시간을 통해 건축물 유형뿐 만 아니라 이미지맵을 통한 지역정비 등에 관한 기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표 3참조>

다양한 주민의견들이 제시된 모습을 통해 논의가 확장되면서 구체화되어 발전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지역정비 등에 관한 주민의견 종합

	주민 의견
공원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정비에 있어 생활공간에 밀접한 소규모의 공원계획이 필요하다.</li> <li>사적공원의 유용한 활용을 위해 유인요소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li> </ul>
도로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내 주차시설과 도로의 전반적 개선, 기독교병원의 도로의 확장</li> <li>대중교통망의 연결</li> <li>광주천의 보행 횡단로확충</li> </ul>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문화재 등의 보전과 전반적인 지역 건축물의 정비</li> <li>도시가스 설치</li> <li>근린생활시설(생활용품 등 점포, A/S, 건자재센터, 생활체육시설, 문화/여가시설, 노인시설 등)의 설치유도</li> <li>공/사설 교육지원시설의 설치유도</li> <li>이웃 간 소음에 관한 고려 필요</li> </ul>
지역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를 이용한 문화관광산업(숙식, 관람, 제품판매)</li> <li>학강 초교 도자기 교실(노인교실 등)</li> </ul>

### 5. 주민워크샵에서의 마을만들기 이미지 맵의 효용성

주민 워크샵을 통해 살펴본 이미지 맵의 효용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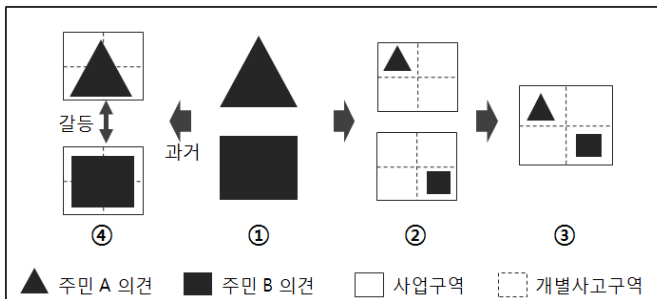


그림 8. 주거지 정비에 관한 주민의견 개념도

첫째, 그림 8의 ① 과 같이 주민들의 A의견과 B의견이 상충될 때, ② 이를 이미지맵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서로 사업구역 전체가 아닌 각각의 개별사고구역이었으며, 사실 주민들 간의 구역과 정비이미지가 상충된 것이 아

니므로 ③ 과 같이 전체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합의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지 맵을 사용하기 이전 주민들의 의견은 ④ 와 같이 개별사고구역이 마치 양림동 전체(사업구역)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여 주민간의 갈등구조가 있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사업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구역이 정해지면 해당 구역 전체를 (1) 주택을 전면 철거한 후,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방식과 (2) 공공시설 정비 후 개별 부지별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현지개발방식으로 진행되어져 왔다. 이러한 사업방식에 익숙한 주민들이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사업<sup>16)</sup>과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한 채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구역이 마치 양림동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또한 주민각자가 사는 구역만 열심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지하는 영역의 문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역에 대하여 상호의사 확인 작업을 거쳐 그룹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외부 변수를 조절하고, 향후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그룹의사결정은 주변에 발행하는 문제점들이 복잡하고 상호 연관성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 해 줄 수 있었다.

둘째, 주민참여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전문가와 행정, 주민이 사용하는 지식기반과 언어가 서로 다르게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고 이해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미지 맵을 활용한 이번 워크샵의 경우 정보 및 계획을 언어보다 시각적으로 표현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빠른 시간 안에 주민들에게 제안된 아이디어를 이해하게 하고 제시하게 하여 의사결정과정의 진행을 돕는데 매우 유용하였다. 또한 지역정비 전반에 걸친 주민들의 의견이 상호 피드백 되고, 향후 계획안에 지속적으로 반영된다면 앞으로도 주민들 간의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 및 의견개진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일반적인 주민공청회의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영

16)거점확산형 정비 방식은 기존 전면 재개발 방식과 현지개발 방식을 결합한 형태로, 분할·순차적 개발 형태로 진행된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역이 정해지면 예정 지구의 20% 정도는 수용해서 거점으로 개발한다. 거점 구역에는 공동주택과 함께 경로당, 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이 들어선다. 그 다음에는 사업 대상 지역을 4~5개로 나눠 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의 거주민들은 거점 지역의 공동주택으로 이주한 뒤 개발이 완료되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양림 2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 주민의 사람의 방식, 특성 등을 고려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기존의 전면개발 방식과 현지개발 방식의 장단점을 크게 보완 할 수 있다. 기존도시와의 조화 속에 주민 편의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양림동 내의 물리적 환경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환경까지 개선함으로써,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심하고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향력이 있거나, 특정 목적을 가진 그룹에 의해 의견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이미지 맵을 활용한 워크샵의 경우 참여한 주민들이 이미지 맵에 건축물 유형을 스티커로 직접 붙이면서 최소한 1회 이상 의견 개진의 기회를 가졌다. 이미지맵은 ① 적극적으로 못했던 주민들에게도 보다 다양한 관점과 주거지 정비의 진행과정, 향후 정비방향 및 목표의식을 갖게 하는데 용이하다. ② 주거지 정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도 이미지 맵이라는 도구의 경험을 통해 정보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거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지식습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 III. 결 론

본 연구는 주민의 의견을 도출·교류하며 이러한 의견들을 주거지 정비 관련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연구를 통하여 참여도구의 개발지표로서 시각화 및 상호 피드백, 맵핑의 활용 등의 중요성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 이미지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한 마을만들기 이미지 맵은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인 광주 양림동 주민 워크샵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 효용성 검증은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을만들기 이미지 맵 활용을 통해 ① 몇몇 주민을 중심으로 한정된 의견으로 진행되어온 이제까지의 주민공청회와는 달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참여한 모든 이들이 최소한 1회 이상의 의견개진기회를 갖고, 보다 쉽게 의견을 구체화하였다. 이로 인해 ② 스스로, 상호간 피드백이 이루어져 주민간의 오해의 소지가 경감되고 합의 도출을 용이하게 하여 의사결정과정의 진행을 돕는데 유용하였다. 또한 주민의견들이 합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기존 워크샵과는 달리 2시간 안에 다 마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었다. ③ 지역에 대한 특성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지역에 대한 사고 및 논의기회를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 증진과 주거지 정비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 진행과정, 향후 정비방향 및 목표의식을 갖게 하였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마을만들기 이미지 맵 도구의 사용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관점, 적극적인 참여, 정보의 교환, 시간의 절약, 상호이해, 지역에 대한 관심증진을 일깨워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의 향후 정비 이미지를 말이나 글이 아닌 그림으로 직접 제작, 활용하는 것은 주민 상호간 정확한 의견전달 및 합의를 유도함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다.

다만 주민대표자 모임이 아닌 해당 워크샵에 참여한 주민들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을만들기 이미지 맵이 지역 전체를 대표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보다 발전된 주민의견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이미지 맵에서 다루어 지지 않았던 공원 및 녹지 공간/생활환경 및 문화 교육에 관련된 부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루어 실용성 있는 도구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 이창호 외(2008),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운영방안,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pp18
2. 박우장(2001), 공동주택 단위 주호의 참가디자인 도구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9호.
3. Nabeel Hamdi, Reinhard Goethert(1997), Action Planning for Cities: A Guide to Community Practice, Wiley.
4. Sanoff, Henry(2000), Community Participation Method in Design and Planning, Wiley.
5. 김규리(2008), 커뮤니티 맵 작성을 위한 지역특성 추출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박우장(2004), 커뮤니티 참여디자인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3권 4호.
7. 안찬현 외(2006), 주민-전문가간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참여 디자인 과정과 도구, 한국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8. 김현숙(2006), 도시설계 워크샵의 프로세스와 시각화기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2권 2호.
9. 문태현 외(2004),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한 웹기반 협력적도시계획모형 개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39권 7호.
10. Sanoff, Henry/이경훈 역(1991), 디자인 게임, 태림문화사
11. Nick Wates/오민근·이석현·CIS 역(2000), The Community Planning Handbook, 미세움.
12. 신대현(1999), 상세계획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이지숙 외(2008),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7권 3호.
14. Gerald Porterfield(2001), Community By Design: New Urbanism for Suburbs and Small Communities, McGraw-Hill.
15. 신중진 외(2008),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계획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4권 2호.
16. 정석 외(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 1: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시정개발연구원.
17. 조미향 외(2006),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현황 및 향후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18. 사토 시게루/민현석 역(2008), 마을만들기 디자인 게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 와타 다카시/손주희 역(2008), 소통과 나눔 그리고 새로운 마을, 아르케.
20. 박중신 외(2008), 도심주거지 정비를 위한 주민참여와 마을의 미래상 검토,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1. Hamdi, Nabeel(2008), Housing Without Houses, (Participation, Flexibility, Enablement), Stylus Pub Llc.
22. 최일섭/류종해(1988), 地方化 時代に 있어서 福祉政策의 課題와 住民參與, 국회보260,국회사무처, pp.440-441